개성공단, 플라스틱 가공기업 손짓

시범단지 입주 15사 모두 중소기업 ... 중국진출 국내기업 U-Turn

개성공단 시범단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함으로써 플라스틱 가공기업, 섬유기업의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분양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9개 업종 15사로 시계의 로만손과 의류의 신원, 신발의 세종기업 등이 진출을 예정하고 있다.

선정기업 중 2사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S.J. Tech 및 태성산업), 다른 2사가 봉제의복 및 신발 제조기업이었으며, 나머지 11사는 목재 및 나무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파악됐다.

또 입주 예비후보기업 10사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사(삼성플라스틱), 봉제의복·신발 제조업 및 편조업 6사가 포함돼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중소기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15사 중 8곳의 자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이며, 6곳이 100억-1000억원 미만인 반면 1000억원 이상은 1곳에 불과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곳 외에도 이미 선진국의 중국진출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린 국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나 섬유 관련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단지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기반시설 사용이 적고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으며 노동집약성이 높은 업종”을 우선하고 있어 플라스틱 사출기업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개성은 남쪽과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가 저렴하고 관세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해외 생산기지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기술 숙련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임금이 2배 가량 상승한데 이어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과 비교하면 개성은 인건비가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입지여건만 조성되면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기업 중 처음으로 개성에 들어서는 S.J. Tech(대표 유창근)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은 개성공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공장은 자동화해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과 연구소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S.J. Tech는 우선 시범단지에 1600평의 공장을 조성해 인천공장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현지인력 200여명으로 운영하다 100만평의 개성공단 1단계 조성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부천공장을 이전·증설해 3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 개성에서만 1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화장품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태성산업(대표 배해동)은 개성공단 입주를 절호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태성산업은 개성공단 부지로 총 240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 매출 125억원 가운데 크리닉,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인 화장품 메이커 수출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는 만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지키며 수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5>